

# KIA, 만능 내야수 류지혁 영입... 핫코너 구멍 메꿨다

주전으로 나서도 문제 없을만큼 두산 내야 한 축 활약  
적임자 없던 3루 수비 안정... 타석에서도 클러치 능력

KIA 타이거즈 내야에 또 한 명의 멀티플레이어가 됐다. 시즌 전 베테랑 나주환(36)을 영입해 쓸쓸한 효과를 봤는데 이번에는 미래까지 기대되는 류지혁(26)이 가세했다.

KIA는 지난 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 베어스전을 마친 뒤 우완투수 홍건희를 두산에 보내고 두산 내야수 류지혁을 받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류지혁은 두산의 백업 멀티플레이어로 주 포지션인 유격수는 물론, 2루수, 3루수 그리고 1루수까지 소화 가능한 만능 내야수로 평가된다.

지난 2016년부터 출전기회가 대폭 늘어나 2017년 125경기, 2018년 128경기, 2019년 118경기에 나섰다. 이번 시즌도 20경기에 출전했다. 백업 출전이 다수였지만 주

전으로 나서도 문제가 없을만큼 두산 내야의 소리 없는 한 축으로 활약했다.

타석에서도 매 시즌 30타점 이상이 가능한 선수다. 제한된 타격기회에도 불구하고 타석에서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가대표급을 자랑하는 두산 내야가 견고해 백업에 머물렀을 뿐, 다른 팀에서는 충분히 주전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됐다.

그만큼 KIA에 절실했던 선수다. 현재 유격수 박찬호-2루수 김선빈이 굳건하지만 지난해 이범호가 은퇴한 뒤 공백이 생긴 3루 포지션에서는 아직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전체 백업진도 부족하다.

이 점은 3연패를 당한 지난 주말 두산 원정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6일 경기에서 3루수 장영석의 결정적 실책으로 흐름을 내줬는데 이처럼 매 경기 3루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장영석 외에 황윤호가 있지만

안정감 등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여전했다.

최근에는 지난해 무상트레이드로 영입한 베테랑 나주환이 자리를 꿰차는 듯 했다. 나주환 역시 대표적인 내야 멀티플레이어로서 1루수와 2루수, 3루수가 모두 가능하다. 지난 몇경기에서 나주환은 3루를 도맡으며 수비와 공격력에서 팀 상승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나주환이 허벅지 부상으로 이탈하자 다시 한 번 3루가 취약포지션으로 떠올랐고 이에 KIA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류지혁을 새 카드로 선택했다. 나주환이 나이가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두 선수를 효과적으로 나눠 기용하겠다는 의도도 보여진다.

류지혁과 나주환 모두 대표적인 내야 멀티플레이어로서 당장 할거는 KIA의 3루 포지션을 비롯, 내야 전반에 안정감을 불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타석에서도 경기 후반 대타, 대주자로 활용할 수 있어 작전야구를 도울 효과적인 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지혁

류지혁-홍건희 맞트레이드 속사정

## 두산이 밀지는 장사?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가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 내야의 '슈퍼백업' 류지혁(26)이 KIA로, 전전후 우완 홍건희(28)가 두산으로 각각 유니폼을 바꿔입었다.

즉각 '두산이 밀지는 장사?'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올 시즌만 봐도 류지혁은 20경기에서 타율 0.417(24타수 10안타) 1홈런 4타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에 비해 홍건희는 10경기에서 승패없이 평균자책점 6.00(12이닝 8자책)으로 그저 그런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을 비교해도 류지혁이 홍건희에 앞선다. 류지혁은 통산 497경기에서 타율 0.267 8홈런 102타점을 기록했다.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점도 류지혁의 장점. 반면 홍건희는 통산 166경기에 등판해 9승2패에 다소 높은 평균자책점 6.30을 기록 중이다.

그럼에도 두산이 류지혁을 트레이드한 이유는 현재 팀의 마운드 사정 때문이다. 선발의 한 축인 이용찬이 팔꿈치 인대 손상 진단으로 시즌아웃된 것. 이에 마운드

보강이 시급해졌고 어느 팀에서나 탐내는 카드인 류지혁을 꺼내들었다.

홍건희는 선발, 불펜 모두 가능한 자원이자, 두산으로선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홍건희가 홈 잠실구장에서 강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홍건희는 2011년 데뷔 이후 잠실에서 19경기 등판, 평균자책점 3.76을 기록했다. 6점대를 기록 중인 통산 평균자책점을 고려하면 잠실에서 특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산 측은 "홍건희는 빠른 직구에 수준급의 변화구를 구사하는 선수"라며 "선발과 불펜으로 많은 경험을 쌓은 홍건희가 마운드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英스카이스포츠,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8일 루머 코너서 소개  
"페레스 회장이 관심"

손흥민(28·토트넘)이 토트넘을 떠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영국 언론 스카이스포츠도 거들었다.

스카이스포츠는 8일(한국시간) 이적 관련 루머를 다루는 코너를 통해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와 연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플로렌스 페레스 레알 회장'이 손흥민을 선호한다고 보도한 스페인 매체 돈 발롱을 인용했다. 앞서 돈 발롱은 "이번 여름 이적시장 때 레알이 손흥민 영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외 영국의 또 다른 매체 팀토크 역시 손흥민과 레알이 강하게 연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들은 더 나아가 토트넘이 1억 5000만 유로(약 2040억원)를 손흥민의 최소 이적료로 설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에서 정상급 실력을 보여주며 지난 몇 년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 빅클럽 이적설이 나온 바 있는 손흥민이지만 라리가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인 레알 관련 설은 적었다. 그런데 최근 현지 언론에서 부쩍 자주 연결되고 있다. 다만 스카이스포츠도 아직은 하나의 루머 정도만 소개했다.



## 펠리페 '극장골'...광주FC, 5경기 만에 첫 승

'승격팀' 광주FC가 귀한 승리를 쟁겼다. 수원삼성 원정에서 '극장골' 덕분에 승전고를 울렸다.

박진섭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이날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하나원큐 K리그1 2020 수원과의 5라운드에서 1-0 신승을 거뒀다.

후반 45분이 다 지날 때까지 스코어는

0-0. 서로 승점 1점씩 쟁기는 결말을 예상하던 순간, 광주 외국인 선수들의 집중력이 희미를 갈랐다.

수원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진 사이 박스 안에서 마르코가 어렵사리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를 펠리페가 헤더골로 마무리, 광주가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

## 한용덕 불명예 퇴진 '한화 감독 잔혹사'

'명장' 김용용-김성근 이어 '레전드' 도 초라한 퇴장

한화 이글스의 '감독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백전노장의 베테랑 사령탑들은 물론 구단의 레전드까지 불명예 퇴진을 피하지 못했다.

한화는 지난 7일 대전 NC전을 마친 뒤 한용덕 감독이 자진사퇴했다고 발표했다. 구단 역대 최다인 14연패에 빠지며 7승23패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성적 부진에 한용덕 감독이 모든 책임을 떠안은 모양새다.

한용덕 감독은 2018년 처음 한화 지휘봉을 잡았다. 두산 베어스 수석코치였던 그는 친정팀에 복귀하면서 장종훈(롯데 코치), 송진우(KBSN 해설위원) 코치 등 빨방이 흩어져 있던 구단 레전드들을 불러모았다.

한화 구단도 한용덕 감독(40번)은 물론 장종훈(35번), 송진우(21번) 코치에게 현역 시절 등번호를 선사하며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종훈, 송진우 코치의 경우 이례적으로 영구결번된 자신의 등번호를 사용했다.

한용덕 감독은 부임 첫 해였던 2018년, 팀을 정규시즌 3위에 이끌며 11년만에 가을야구 무대에 진출시켰다. 그러나 2019년, 1년만에 9위로 급전직하하면서 위기를 맞았고 올 시즌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최하위까지 치진 가운데 자진사퇴했다.

한용덕 감독 이전에는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사령탑 2명이 고배를 마셨다. 먼저 통산 최다승(1567승), 한국시리즈 최다우승(10회)에 빛나는 김용용 감독. 김용용 감독은 2013년 한화 사령탑으로 부임해 2014년까지 2년 연속 최하위(9위)에 머문 뒤 화려한 명성에 흠집만 남긴 채 초라하게 퇴장했다.

다음은 '야신' 김성근 감독이었다. 김성근 감독은 2015년 한화 사령탑에 올라 그해 '마리안화'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팀을 10개 구단 중 6위에 올려놓았다. 끈질긴 경기력으로 선수단을 패배의식에서 건져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듬해부터 불거진 후사 논란으로 결국 2016년 7월에 이어 2017년 43경기만에 중도 퇴진했다.

## UFC 격투기스타 코너 맥그리거 전격 은퇴

"경기하는 것 지루해져"

UFC 격투기스타 코너 맥그리거(32·아일랜드)가 전격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지루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맥그리거는 지난 7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격투기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각종 매치업에 단골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며 그 외 사회적 활동도 활발했기 때문에 다소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은퇴선언 직후 미국 ESPN과 인터뷰를 가진 맥그리거는 "경기를 하는 것이 지루해졌다"고 은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를 펼치는 것이 더 이상 나를 흥분시키지 않았다. (UFC가) 9월 안에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쏟아냈다.

다만 은퇴 선언이 지켜질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맥그리거는 이미 작년 3월에도 은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한 바 있기 때문이다.